정연준 교수 '카데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초청돼

〈전북대병원〉

지난해 전주 단편영화제작지원 선정작… 시신 기증까지의 · 가족들 고뇌 다뤄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외과 정연준 교수가 만든 영화가 22일 개막된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작으로 상영된다.

이번에 초청된 작품은 정연준 교수가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은 15분짜리 단편영화 '카데바'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패밀리 단편' 부문에 초청됐다.

정 교수의 단편영화는 영화제가 열리는 24일과 25일 양일간 부산 현지 시네마테크(24일 오후 6시)와 소극장(25일 오후 5시 30분)에서 각각 상영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 '카데바'는 지난해 전주 단편영화제작지원 선정작에 당선된 작품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분들이 시신 기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과 가족들의 고뇌를 통해 시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카데바는 의학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원래는 시체라는 뜻이다. 영화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시신 기증에 얽힌 사연을 제3자로서 또 당사자로서 경험하면서 의학도로서 유가족으로서 느낀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겪으면서 훌륭한 외과교수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와중에 중국에서 카데바로 장난을 쳐서 큰 파동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시신기증에 대한 온전한 뜻을 담아 영화를 찍을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외과의사로 봉직하고 있는 정 교수 자신의 성장사이기도 한 셈인데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갖게된 것 역시 외과의사의 첫발을 딛는 '집도식 영상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병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 정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싶다는 영화감독으로서의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제33회째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국내외 40개국 14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김영재 기자

완주군자봉센터, 어르신 문화 · 전문봉사활동 펼쳐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활동 펼쳤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완주청년회의소, 완주라이온스클럽, 삼례로터리클럽, 봉동로터리클럽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송지용 도의원 등 완주 관내 20여명의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수지침, 귀반사, 캘리그라피 등의 전문부스와 돋보기 안경맞춤, 혈압 및 당뇨를 체크할 수 있는 건강부스 운영은 물론, 미(味)인음식나눔봉사단, 행복나눔봉사단, 모아줌바댄스, 대중가요와 같은 문화공연까지 함께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했으며 8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안내부터 식사 마무리까지 행사 전반에 걸쳐 봉사활동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수 있었다.

이날 봉사를 받은 봉동 월리 어르신은 "자식들이 내부모 보살피듯 아픈곳도 자상히 물어보고 돋보기도 맞춰주고 재미있는 공연도 해주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 전주 트롤리버스에 4대악 근절 홍보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4대악 근절 홍보를 위해 한옥마을 트롤리 명품 버스와 연계해 4대악 근절 홍보에 나섰다.

완산경찰서는 전주시청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전주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한옥마을, 풍남문 등을 경유하는 트롤리 명품버스를 활용,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4대악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롤리 버스 후면에 '4대악 근절, 전북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란 문구와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를 그려넣고, 버스 하차벨에도 '4대악 STOP' 문구를 부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한옥마을을 지나는 명품 버스와 연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4대악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노송동 직원, 인보노인복지센터 점심도시락 준비 봉사

노송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22일 인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홀로어르신 54세대에 전달할 점심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홀로어르신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완주임실 농어촌공, 거인산촌마을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21일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거인산촌마을에서 마을환경정화 및 경관개선을 위해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행사를 가졌다.

전주완주임실지사 직원과 거인마을 주민들은 마을공터에 꽃잔디를 식재하는 등 아름답고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동참했다.

김정웅 이장은 "식재한 꽃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농촌마을 가꾸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거인산촌마을은 위험지역 보수, 상하수도정비, 신설, 주택개량 등 취약지역 내 생활환경인프라를 개선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7억 9,100만원이 투입된다. /신광영 기자

익산 남중자율방범대,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

익산경찰서는 22일 남중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원 전북지방청장이 직접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된 남중자율방범대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중자율방범대는 근린생활치안·여성안심귀가 등 범죄예방 및 학교 앞 교통질서확립 등 민·경 협력치안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청에서 시행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었으며, 인증패 및 최승국 우수대원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재원 전북청장은 "경찰과 협력단체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감받는 경찰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협력 치안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성량 남중자율방범대장은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된 것은 모두 대원들이 성실히 지역 치안을 위해 활동해준 덕분이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무진장축협 상임이사 전태술씨 선출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은 4일 오전 2층 강당에서 2015년도 결산총회를 열고 '재4대 상임이사'에 전태술씨(61, 전 상무)를 선출했다.

이날 선거인(대의원) 총 71명 중 68명이 참석 전태술씨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65명이 찬성(95.5%), 앞도적으로 상임이사에 선출됐다.

전 씨는 마령중학교를 나와 전북대학교 농업대학개발원 축산부문을 수료하고, 1986년 무진장축협에 근무를 시작으로 2011년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25여년을 축산인과 축협을 위해 몸 바쳐 왔다.

전 상임이사는 당선 소감에서 "선거로 인한 조합원, 대의원, 임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의 분의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최고 강한 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상

전라북도 선도기업인 우신산업(주) 국중하 대표이사가 '제49회 과학의 날·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인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한 국중하 대표는 상용차 대형 알루미늄 연료탱크 국산화에 성공해 특허를 획득하고 수입대체, 부품 경량화, 기술 수출 등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우신산업의 알루미늄 연료탱크는 외국으로부터 기술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했던 기존 자동차산업의 전례를 바꿔 현재 자체개발한 기술을 동남아 등지에 이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국중하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라는 신념을 가지고 앞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식은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신광영 기자

전주고용노동지청, 뻔뻔한 토크콘서트 28일 오후 4시 개최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전라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대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위로하고 취업 멘토와 허심탄회한 토론을 갖는 '뻔뻔(FUN2)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층의 희망찬 미래인 '꿈'을 주제로 한국 첫 우주인 후보로서 현재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는 기업인 고 산(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씨가 첫 패널로 참가해 특별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외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패널들이 참가해 취업·진로 고민이 깊은 청년들의 1일 취업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해 취업·진로 및 꿈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패널들의 풍부한 경험담과 해결방안 등을 조언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결 혼

▲ 안태현(대전 한온시스템 연구원, 안맹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장남)군·이서현(전주 화산초등학교 교사, 이경만씨 장녀)양 = 일 시 : 30일(토) 오후 1시, 장 소 : 전주 엔타워컨벤션웨딩 1층 베일리홀

▲ 이대희(전주시 완산구청근무, 이상순 씨 차남)군·이고은(부안수협근무, 이동영 씨 장녀)양 = 일 시 : 30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전주알펜시아웨딩홀 알펜시아홀

정읍경찰서, 장명동 제일교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정읍경찰서에서는 지난 21일 장명동 제일교회 65세 이상 신도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층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어르신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도 관내 전체 사고발생 중 65세 이상 노인교통사망자는 55%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교회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

특히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31% 차지하는 무단횡단 보행사고로 이에 대한 예방법은 첫째,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널 것, 둘째, 신호등이 깜박일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널 것,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길, 새벽기도에는 운전자에게 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반사지나, 흰색 또는 밝은색 옷을 꼭 착용할 것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경찰청, 일과 후 프로그램 댄스스포츠 과정 신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일과 후 프로그램으로 댄스스포츠 과정을 신설해 감정노동으로 시달리는 경찰 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경찰 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한안혜진 S&J 댄스컴퍼니 무용단장을 초청해 매주 목요일 일과가 종료된 후 댄스강습을 진행,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강좌에 참여한 직원은 "처음 시작할 때 댄스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직접 참여해보니 재미있고 운동효과가 컸다"며 "동료들에게도 댄스강습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올해는 댄스스포츠와 판소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